

## 영재교육에 있어 성격 5요인의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 예측에 관한 연구

주 영 주

이화여자대학교

김 동 심

인하대학교

본 연구는 질 높은 영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재의 성격 5요인의 요소인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이 영재교육의 성과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A영재교육원 학생 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영재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의 수용성, 개방성, 성실성 순으로 자기조절학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영재의 신경증, 자기조절학습 및 외향성 순으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은 영재의 개방성, 성실성, 수용성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영재교육에서는 영재의 성격 5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재교육의 성과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영재교육, 성격 5요인,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

### I. 서 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유아영재를 시작으로 학령기영재 및 성인영재를 포함하여 우수 인재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학령기영재를 위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2013년을 기준으로 이제까지 전체 학생의 약 1.87%에 불과한 영재교육의 대상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교과를 수학과 과학 이외에 정보, 예술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영재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영재교육 대상자의 81.2%가 수학 및 과학교육을 받고 있으며, 발명 4%, 인문사회 3.5%, 정보 2.9% 순으로 아직 수학 및 과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

자인 영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재의 태도,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을 비롯한 정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한기순, 2002). 특히나 대표적인 정적 영역의 하나인 성격특성과 교육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Zeidner & Shani-Zinovich,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의 성과를 예측하는 영재의 성격특성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질 높은 영재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격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 변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교육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안도희, 윤지민, 2009; Ivcevic & Brackett, 2014). 그러나 영재는 성격특성상 일반학생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부족한 실정이다(이순주, 박찬웅, 2009). 영재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영재는 보통 개인주의적이다(Janos & Robinson, 1985), 괴팍하다(Getzels & Jackson, 1962) 및 내향적이고 직관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Sak, 2004) 등 다양한 결과가 밝혀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영재가 일반학생과 다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이들의 독특한 성격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성격특성을 성격 5요인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 5요인(Big Five Factors, BFF)은 성격 이론 중 가장 넓게 수용되고 있는데, 성격특성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Costa & McCrae, 1985). 각각의 성격특성은 개인의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줌은 물론 미래의 행동까지 예측해(강명희, 김민정, 이수지, 김혜선, 2008), 체력뿐만이 아니라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만족도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Roccas, Sagiv, Schwartz, & Knafo, 2002).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의 성과로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를 선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과정과 환경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기술과 전략에 대한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Zimmerman & Schunk, 2001). 영재의 자기조절학습은 미성취영재인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통해 증진 시킬 수 있다(Siegle & McCoach, 2005).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은 영재교육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볼 수 있다. 또 학업성취도는 교육에 있어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영재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영재의 후속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이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재의 성격특성이 영재교육의 성과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의 운영 방안 및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격 5요인 이론

인간의 성격특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성격 5요인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성격 모형으로 성격특성을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으로 구분한다. Fiske(1949)가 성격을 탐구 지능(inquiring intellect), 성취의지

(will to achieve), 사회적응력(social adaptability), 동조성(conformity) 및 감정 조절(emotional control)로 구분됨을 밝혀냈다. 그 후, Norman(1963), Borgatta(1964), Digman(1990) 등이 명명의 차이는 있으나 성격의 특성을 5요인으로 일관되게 밝혀내고 있다(<표 1>참조).

<표 1> 성격 5요인 구분

	1	2	3	4	5
Fiske (1949)	탐구 지능 (inquiring Intellect)	성취의지 (will to achieve)	사회적응력 (social adaptability)	동조성 (conformity)	감정 조절 (emotional control)
Norman (1963)	문화 (culture)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정열성 (surgency)	수용성 (agreeableness)	정서성 (emotionality)
Borgatta (1964)	지능 (intelligence)	책임감 (responsibility)	주장성 (assertiveness)	수용성 (likeability)	정서성 (emotionality)
Costa와 McCrae (1985)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외향성 (extraversion)	수용성 (agreeableness)	신경증 (neuroticism)
Digman (1990)	지능 (intellect)	성취 의지 (will to achieve)	외향성 (extraversion)	규준성 (friendly compliance)	신경증 (neuroticism)

출처: John, Naumann, & Soto (2008). p.115.

성격 5요인은 Costa와 McCrae(1985; 1992)의 NEO 인성검사(NEO Personality Inventor, NEO-PI), 마이애스 브리그스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등을 통해 성격의 ‘OCEAN’으로 불리어 지는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수용성(Agreeableness) 및 신경증(Neuroticism)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성격유형의 5요인은 성격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임이 확인되고 있다(Roccas et al., 2002).

먼저 개방성은 인지적 영역과 관련되어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상, 심미성, 감정, 행동, 사고 및 가치에 대한 개방성으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많으며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진보와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며 견해 차이에 대한 관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반대로 개방성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의견통일을 강조한다. 개방성의 높고 낮음은 단지 개인 성격특성상의 차이일 뿐이지 높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 규칙 및 원칙을 지키려는 성격으로 유능감, 충실성, 성취에 대한 갈망, 신중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한 성취요구가 강하고 신뢰감을 주는 특징을 지닌다. 반대로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산만하고 부주의하며 일관성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

세 번째,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하기를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

도로 온전, 사교성, 주장, 활동성, 자극 추구성,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 높은 외향성을 가진 사람은 사교적이고 모임을 좋아하며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외향성이 낮은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수줍음을 잘 타고,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외향적인 사람은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영업, 인사관리, 교사 등 사람을 직접 만나고 다루는 직업에 끌리며 내향적인 사람은 연구, 창작 등과 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좋아한다.

네 번째, 수용성은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순응성, 겸손, 동정, 사랑이나 온정과 관련되어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이다.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정중하고 협조적이고 관대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타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의 이타적인 특성을 지닌다. 반면에 수용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질투심이 많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은 스트레스 유발 인자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성향의 정도를 말하며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심약과 관련되어 있다. 신경증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생활에서의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또 부정적인 정서인 불안, 두려움, 죄책감 등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다. 신경증이 낮은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평온하고 침착하며, 쉽게 감정이 동요되지 않으며 자기조절을 잘한다.

## 2. 성격 5요인 이론에 의한 영재의 성격특성

영재는 지적능력이 뛰어나지만 성격이나 사회적 발달 수준은 또래와 비슷하여 인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의 차이에서 오는 비동시적 발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Silverman, 1993). 따라서 영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주된 관심사였던 영재의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특성 중 대표적인 성격의 특성까지 연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영재의 성격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이루어져 왔다. 김유미와 안창규(2004)는 초등학교 4-6학년 중 IQ가 130이 넘는 108명과 일반학생 237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수용성은 차이가 없었다. 개방성, 성실성 및 외향성은 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신경증은 일반학생이 영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아 영재와 남아 영재 간에는 성격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란희와 전경남(2013)의 연구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92명과 일반학생 96명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생에 비해 영재학생이 개방성, 성실성 및 외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및 성별이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국외에서도 영재와 일반학생의 성격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Limont, Dreszer-Drogorób, Bedyńska, Śliwińska 및 Jastrzębska(2014)의 연구에서 폴란드의 영재 132명, 일반학생 103명의 성격특성을 비교한 결과, 영재의 개방성은 일반학생보다 높게, 신경증은 낮게 나타났다.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론은 영재와 일반학생은 성격 5요인 이론에 의해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예측하는 영재의 성격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영재의 성격특성과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 가. 성격특성과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과 환경을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 드리지 않고 기술과 전략을 사용해 능동적으로 학습을 끌어내는 것이다(Zimmerman & Schunk, 2001).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동기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학생과 영재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이신동, 유미선, 최병연, 2008). 특히 미성취영재는 자기조절학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영재교육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식사회에서 영재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영재교육에서 자기조절학습의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박혜영, 이신동, 2015).

영재의 성격특성과 자기조절학습을 살펴본 국내외의 연구결과는 많지 않아 선행연구를 일반학생 대상의 연구까지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윤소정, 이은영 및 박귀화(2013)가 중학생 485명, 고등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과 자기조절학습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외연구에서도 Zhang(2003)이 Shanghai의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이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인을 예측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는 개방성은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인인 표층적 동기, 심층적 동기, 심층적 전략을 예측하였으며, 성실성은 심층적 동기, 성취 동기, 심층적 전략, 성취전략에, 외향성은 표면적 동기, 성취 동기, 표면적 전략을, 수용성은 성취동기, 심층적 전략을, 마지막으로 신경증은 표층적 동기, 성취 동기, 표층적 전략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으로 일반학생의 성격 5요인이 자기조절학습을 예측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중 하나인 자기조절학습과 성격 특성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나. 성격특성과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성과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재교육에서 학업성취도는 미래 성공을 예측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에서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고 있으나 영재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의 예측변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주영주, 김동심, 임유진,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인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이 영재교육의 대표적인 성과인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영주와 채유정(2013)의 연구에서 과학영재학교인 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25명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결과,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 성적에 따라 상, 중, 하로 그룹을 나누어서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상위그룹에서는 성실성이 정적으로, 중위그룹에서 외향성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였다.

성격 5요인 중 성실성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결과는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안도희와 윤지민(2009)이 중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에서의 첫째, 둘째 등인 출생순위 및

성격 5요인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높은 성실성과 빠른 출생순위는 높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개방성이 출생순위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밝혀졌다. 강명희, 심혜진, 박미순 및 김민정(2008)도 대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성격특성과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실성만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였다. 성실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며, 원칙을 엄격히 지키려 노력하는 성향을 지닌 학습자일 수록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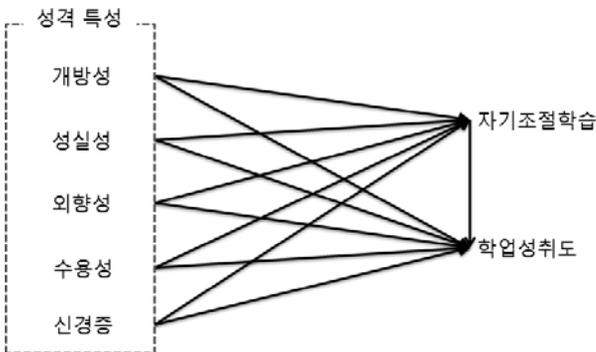
국외에서도 성격 5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으나, 영재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Vedel(2014)는 Australian Education Index의 1977년, British Education Index의 1975년, ERIC의 1966년, PsycINFO의 1806년 및 Sociological Abstracts의 1952년부터 2014년 4월 14일까지의 자료 중 고등교육에 있어서 성격 5요인 특성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하여 살펴본 결과 개방성, 성실성, 수용성이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이 높은 학습자는 높은 학업성취를 성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미경(2009)의 연구에서 미성취영재 10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학습전략이 부족한 미성취영재가 영재교육을 통하여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가 향상됨에 따라 성취영재로의 변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외에서도 호주의 10, 11학년 영재 197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이 밝혀졌다(Abu-Hamour & Al-Hmouz, 2013). 싱가포르의 32개 학교 고성취 고등학생 566명의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또한 정적으로 나타났다(Ee, Moore, & Atputhasamy, 2003).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 가설 1] 영재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은 자기조절학습을 예측할 것이다.

[연구 가설 2] 영재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것이다.



[그림 1] 가설적 연구 모형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영재교육 대상자가 교육받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A영재교육원 재학생 전원 100명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영재교육원은 3단계 전형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1단계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한 영재성을 가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재학생이 자기평가와 교사평가 등을 통해 관찰추천 대상자가 된다. 2단계로는 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관찰 평가 및 심층 면접을 통과한 학생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최종 선발이 된다. 그 외에도 A영재교육원은 소외계층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사회통합 특별전형을 정원의 10% 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자는 정원의 50% 내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진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결석학생과 불성실한 응답자 등 5명을 제외한 95명을 최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은 남자 53명(55.8%), 여자 37명(38.9%), 무응답 5명(5.3%)이며, 영재학생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9명(62.1%), 중학교에 재학 중인 36명(37.9%)이다. 영재교육기간은 1년 미만 37명(38.9%), 2년 35명(36.8%), 3년 14명(14.7%), 4년 9명(9.5%)이다.

1년 단위로 영재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A영재교육원은 수학 및 과학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과 여름방학 주제별 체험학습, 영어 집중 프로그램과 개인 연구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중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봉사활동을 통해 인성 및 감성교육을 실천하고, 프로젝트학습 연구발표 대회를 통해 영재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 2. 연구 도구

성격특성은 성격 5요인 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Barbaranelli, Caprara, Rabasca 및 Pastorelli (2003)의 도구를 기반으로 김복환과 김지현(2012)이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격을 개방성(예: 나는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바로 이해한다), 성실성(예: 나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킨다), 외향성(예: 나는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용성(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및 신경증(예: 나는 쉽게 기분이 상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의 문항내적일치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alpha$ 는 개방성 .74, 성실성 .60, 외향성 .67, 수용성 .74, 신경증 .61이며,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 .81, 성실성 .71, 외향성 .79, 수용성 .77, 신경증 .63이었다.

자기조절학습은 DiDonato(2013)의 자기조절학습 관련 5문항(예: 나는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을 사용하였다. 원 도구의 Cronbach의  $\alpha$ 는 .79이다.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영재교육의 결과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중 매 수업마다 지필평가로 실시되고 있는 형성평가 점수들의 평균점수로 구성된 100점 만점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성격 5요인,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alpha$ 를 구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셋째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개별변인들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 새로운 변인의 추가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e)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변인인 성격 5요인이 준거변인인 학업성취도를 예측함에 있어 자기조절학습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유의도는 .05 수준에서 분석되었다.

## IV. 연구 결과

### 1. 측정변수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의 상관을 구했으며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표 2> 참조). 변인들의 평균은 최저 2.16에서 최고 80.98, 표준편차는 최소 .63에서 최고 6.78이다. 각 변인의 평균은 개방성( $M=4.27, SD=.65$ ), 성실성( $M=4.02, SD=.79$ ), 외향성( $M=4.32, SD=.79$ ), 수용성( $M=4.21, SD=.63$ ), 신경증( $M=2.16, SD=.80$ ), 자기조절학습( $M=3.76, SD=.76$ ) 및 학업성취도( $M=80.98, SD=6.78$ )이다. 왜도는 절대값 최소 .23에서 최고 1.12, 첨도는 절대값 최소 .26에서 최고 .53으로 왜도가 2보다 작고 첨도가 7보다 작아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것(Curran, West, & Finch, 1996)으로 판단되었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절대값 최소 .14에서 최대 .58이며 모든 예측변수와 준거변수가 유의한 상관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과 각각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졌다. 개방성( $r=.58$ ), 성실성( $r=.54$ ), 외향성( $r=.41$ ), 수용성( $r=.55$ ) 및 신경증( $r=-.27$ )이다. 학업성취도도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 및 자기조절학습과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개방성( $r=.32$ ), 성실성( $r=.29$ ), 외향성( $r=.32$ ), 수용성( $r=.32$ ), 신경증( $r=-.30$ ) 및 자기조절학습( $r=.35$ )이다.

<표 2>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호상관행렬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	자기조절	학업성취도
개방성	-						
성실성	.56*	-					
외향성	.36*	.46*	-				
수용성	.52*	.43*	.46*	-			
신경증	-.24*	-.20	-.14	-.29*	-		
자기조절학습	.58*	.54*	.41*	.55*	-.27*	-	
학업성취도	.32*	.29*	.32*	.32*	-.30*	.35*	-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개방성	4.27	.65	-.58	-.26	2.33	5.00
성실성	4.02	.79	-.50	-.43	2.00	5.00
외향성	4.32	.79	-1.12	.49	2.00	5.00
수용성	4.21	.63	-.37	-.53	2.33	5.00
신경증	2.16	.80	.47	-.41	1.00	4.33
자기조절학습	3.76	.76	-.23	-.41	1.80	5.00
학업성취도	80.98	6.78	.40	-.40	68.98	99.25

N=95, \* p<.05

## 2.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예측력 검증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이 자기조절학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외향성과 신경증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의 개방성, 수용성, 성실성이 포함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6.13, p<.05$ ). 자기조절학습의 총 변화량의 46%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수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0~1.67로 모두 10이하임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아래 <표 3>에 따르면, 진입 유의확률 .05미만, 제거 유의확률 .05초과로 두고 단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설명력이 있는 개방성, 수용성 및 성실성은 선택되어 모델에 진입되었고, 외향성 및 신경증은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아 선택되지 않고 제거되었다. 수용성 ( $\beta=.29, p<.05$ ), 개방성 ( $\beta=.28, p<.05$ ), 성실성 ( $\beta=.25, p<.05$ ) 순으로 자기조절학습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외향성 ( $\beta=.08, p>.05$ )과 신경증 ( $\beta=-.06, p>.05$ )은 자기조절학습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표 3> 관련 변인의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예측력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진입된 변인	수용성	.36	.11	.29	3.25*
	개방성	.33	.12	.28	2.79*
	성실성	.24	.09	.25	2.71*
제거된 변인	외향성			.08	.86
	신경증			-.06	-.85

$R^2(\text{adj. } R^2)=.46(.45), F=26.13, p=.00$

N=95, \* p<.05

## 3.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 검증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 및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개방성, 수용성, 성실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의 외향성, 신경증 및 자기조절학습이 포함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93, p<.05$ ). 학업성취도의 총 변화량의 21%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수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분산팽창요인이 1.00~1.27로 모두 10이하임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아래 <표 4>에 따르면, 진입 유의확률 .05미만, 제거 유의확률 .05초과로 두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설명력이 있는 신경증, 자기조절학습 및 외향성은 선택되어 모델에 진입되었고, 개방성, 수용성 및 성실성은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아 제거되었다. 신경증( $\beta=-.23, p<.05$ ), 자기조절학습( $\beta=.20, p<.05$ ), 외향성( $\beta=.20, p<.05$ )순으로 학업성취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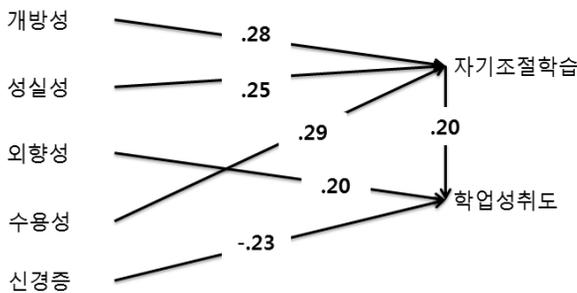
<표 4> 관련 변인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진입된 변인	신경증	-1.93	.83	-.23	-2.31*
	자기조절학습	1.84	.94	.20	1.96*
	외향성	1.77	.88	.20	2.00*
제거된 변인	개방성			.12	.99
	수용성			.08	.67
	성실성			.07	.57

$R^2(\text{adj. } R^2)=.21( .18), F=7.93, p=.00$

$N=95, *p<.05$

영재의 성격 5요인,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최종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종 연구모형

#### 4.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Preacher와 Hayes (2004)는 Sobel(1982) 및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이 정규분포 또는 t분포를

이루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밝히고, 부트스트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5,000번을 실시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개방성, 성실성 및 수용성 모두 유의한 완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개방성, 성실성 및 수용성 모두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계수의 하,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먼저,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개방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1.50, 수용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1.46, 성실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1.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경로	Bootstrap 추정치		Bootstrap 95% 신뢰구간	
	B	SE	LLCI	ULCI
개방성 → 자기조절학습 → 성취도	1.50*	.76	.22	3.24
성실성 → 자기조절학습 → 성취도	1.26*	.67	.25	2.82
수용성 → 자기조절학습 → 성취도	1.46*	.81	.13	3.39

\*p < .05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재의 5가지 성격특성인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과 영재교육의 성과인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및 신경증이 자기조절학습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방성, 성실성 및 수용성이 자기조절학습을 예측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영재가 학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규칙적으로 처리하고, 책임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있어서 영재의 자기조절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재의 성격특성 중 개방성, 성실성 및 수용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모두가 다 자기조절학습을 예측한 것과 달리(윤소정, 이은영, 박귀화, 2013; Zhang, 2003), 영재의 경우, 외향성과 신경증이 자기조절학습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성격요인보다 높게 나타난 외향성은 영재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동중심의 학습을 통해 증진되어, 스스로 학습을 차분히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기조절학습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재의 신경증이 자기조절학습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영재가 영재교육 자체에 대한 자부심 및 만족도가 높아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증이 낮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 신경증이 학습에 대한 능동성과 관련된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영재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수용성, 신경증 및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외향성, 신경증 및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것이 확

인되었으며, 개방성, 성실성 및 수용성은 자기조절학습을 완전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였다. 이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특성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결과로 영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일반학생은 성실성(강명희 외, 2008; 안도희, 윤지민, 2009), 국외 일반학생은 개방성, 성실성 및 수용성(Vedel, 2014)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것 달리, 국내영재는 성격특성인 외향성과 신경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나 학업성취도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신경증은 이와 비슷한 영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교교육의 성과를 살펴본 한기순과 황은아(2010)의 연구에서 부적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영재 성격의 우울, 분노 등과 관련된 영역이 교육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개방성, 성실성 및 수용성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것이 확인되어 영재의 성격은 높은 교육성과가 도출되기 위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격특성은 타고난 기질로서 변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격 및 발달심리학자들 사이에서의 오랜 시간 논쟁의 주제이다. 성격이 일관되고 안정적이라는 대부분의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와는 달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격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현정, 최미례, 김용주, 고재원,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의 영재학생으로 성격특성에 대한 변화 및 관리적 측면으로 긍정심리자본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최근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및 직업이나 학업에서의 높은 성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다(Luthans, 2002). 높은 영재교육 성과가 마련되기 위해 확인된 높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및 수용성과 낮은 신경증의 관리를 위해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회복시키며, 이미 벌어지거나 예상되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조망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긍정심리자본 프로그램을 영재에게 제공하면 영재교육의 보다 높은 성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경화와 태진미(2013)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영재를 대상으로 진행시킨 결과, 창의적 성격 전반을 비롯한 자아개념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후속으로 마련되는 정부의 영재교육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영재교육에 있어서 학문중심교육과 함께 성격을 비롯한 인성, 대인관계, 진로설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강력한 영재교육의 성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재의 성격특성과 영재교육의 성과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 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질 높은 영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영재교육프로그램이 성격과 같은 정의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영재교육의 성과가 증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재의 성격 변화를 통한 영재교육의 성과 증진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략

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재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측변인을 밝히기 위해 영재의 성격특성 5가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재교육의 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지원, 자기결정성 등을 선정하여 이들과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영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재의 성격특성이 영재교육의 성과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영재교육은 양적 성장에 집중하여 영재교육 성과 진단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부터는 영재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교육부, 2016).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 외에도 다양한 영재교육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강명희, 김민정, 이수지, 김혜선 (2008). 웹기반 협동학습에서 학습자의 5요인 성격 특성이 상호작용과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3), 197-223.
- 강명희, 심혜진, 박미순, 김민정 (2008). 온라인 학습활동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습자의 성격특성의 예측력 검증. **교육방법연구**, 20(1), 111-129.
- 교육부 (2016). 2016 업무추진계획. 세종: 교육부.
- 김복환, 김지현 (2012). 한국어판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질문지(K-BFQC-SF) 타당화 연구. **초등상담연구**, 11(3), 371-390.
- 김유미, 안창규 (2004).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 차이 분석. **영재교육연구**, 14(2), 73-97.
- 박현정, 최미례, 김용주, 고재원 (2011). 사관생도의 성격특성 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95-116.
- 박혜영, 이신동 (2015).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영재성 구인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4(1), 267-288.
- 안도희, 윤지민 (2009). 출생 순위와 성격 5요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3(3), 623-643.
- 유란희, 정경남 (2013). NEO 아동용 성격검사를 이용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성격특성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2(1), 233-257.
- 윤소정, 이은영, 박귀화 (2013). 중, 고등학생의 성격특성,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61(2), 441-470.
- 이경화, 태진미 (2013). 영재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영재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12(3), 53-74.
- 이순주, 박찬웅 (2009). 영재아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 분석. **영재교육연구**, 19(1), 24-45.
- 이신동, 유미선, 최병연 (2008). 초등 영재와 일반학생간의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성향과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의 차이. **영재교육연구**, 18(3), 425-442.
- 이영주, 채유정 (2013). 과학영재의 인지특성 및 성격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재교육**

연구, 23(4), 523-535.

- 조미경 (2009). 자기조절 학습전략 프로그램이 미성취 영재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15(2), 105-122.
- 주영주, 김동심, 임유진 (2015). 영재교육에 있어서 과제집착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부모지원, 만족도 및 성취도 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5(4), 529-546.
- 한국교육개발원 (2015). 영재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기순 (2002). 5요인 인성 모형에 기초한 영재들의 성격. *인문학연구*, 5, 177-207.
- 한기순, 황은아 (2010).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와 학교적응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8(3), 27-45.
- Abu-Hamour, B., & Al-Hmouz, H. (2013). A study of gifted high, moderate, and low achievers in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ward school and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8(3), 5-15.
- Barbaranelli, C., Caprara, G. V., Rabasca, A., & Pastorelli, C. (2003).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the Big Five in late child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4), 645-66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orgatta, E. F. (1964).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havioral Science*, 9(1), 8-17.
- Costa, P. T., & McCrae, R. R. (1985). *NEO Personality Inventory*.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1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Donato, N. C. (2013). Effective self-and co-regulation in collaborative learning groups: An analysis of how students regulate problem solving of authentic interdisciplinary tasks. *Instructional science*, 41(1), 25-47.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1), 417-440.
- Ee, J., Moore, P. J., & Atputhasamy, L. (2003). High-achieving Students: Their motivational goals, self-regulation and achievement and relationships to their teachers' goals and strategy-based instruction. *High Ability Studies*, 14(1), 23-39.
- Fiske, D. W. (1949). Consistency of the factorial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from different source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4(3), 329-344.
- Getzels, J. W., & Jackson, P. W. (1962). *Creativity and intelligence: Explorations with gifted students*. New York: Wiley.
- Ivcevic, Z., & Brackett, M. (2014). Predicting school success: Comparing conscientiousness, grit, and

- emotion regulation abi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2, 29-36.
- Janos, P. M., & Robinson, N. M. (1985). Psychosoci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ly gifted children. In F. Horowitz & M. O'Brien (Eds.), *The gifted and talente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149-19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14-158). New York: Guilford.
- Limont, W., Dreszer-Drogorób, J., Bedyńska, S., Śliwińska, K., & Jastrzębska, D. (2014). 'Old wine in new bottles?' Relationships between overexcitabilities,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giftedness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9, 199-204.
- Luthans, F. (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6), 574-58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occas, S., Sagiv, L., Schwartz, S. H., & Knafo, A. (2002).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ersonal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6), 789-801.
- Sak, U. (2004). A synthesis of research on psychological types of gifted adolescents. *Prufrock Journal*, 15(2), 70-79.
- Siegle, D., & McCoach, D. B. (2005). Making a difference: Motivating gifted students who are not achieving.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8(1), 22-27.
- Silverman, L. K. (1993).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Denver, Co: Love Publishing.
- Sobel, M. E. (1982). A 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Vedel, A. (2014). The Big Five and tertiary academic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1, 66-76.
- Zeidner, M., & Shani-Zinovich, I. (2011). Do academically gifted and nongifted students differ on the Big-Five and adaptive status? Some recent data and conclus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5), 566-570.
- Zhang, L. F. (2003). Does the big five predict learning approach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8), 1431-1446.
- Zimmerman, B. J., & Schunk, D. H. (2001).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etical perspectives*. Oxford: Routledge.

= Abstract =

## Influence of Big Five Personality on Self-Regulation Learning and Achievement in Gifted Education

Youngju Joo

*Ewha Womans University*

Dongsim Kim

*Inha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openness to experience,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greeableness, neuroticism), self-regulation learning, and achievement in children in a gifted education program. 95 students in a gifted education progr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hypothetical model proposed openness to experience,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greeableness, neuroticism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elf-regulation learning and achievement with gifted education as dependent variable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openness to experience, conscientiousness, and agreeableness significantly predicted self-regulation learning. Also, neuroticism, self-regulation learning, and extraversion significantly impacted achievement with gifted education. openness to experience, conscientiousness, and agreeableness showed that complete mediating effects through self-regulation learning to achievement. A foundation for improving learning strategies in a successful gifted education program can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Gifted education, Big five personality, Self-regulation learning, Achievement

1차 원고접수: 2016년 12월 24일
수정원고접수: 2017년 3월 20일
최종게재결정: 2017년 3월 24일